2024.4.13. 5고 ver

세라비 (C'est la vie) (가제)

연출 현우빈

조연출 김경민, 김승주

제작 박재영

촬영 신민송

조명 채윤서

음향 김경민

미술 곽주영

편집 최한휘

기획의도

태어나면 죽는다.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순 없다. 모두 원래 이런 것이라 덤덤하게 알고 있음에도, 막상 죽음이 다가온다면, 무섭고 외면하고 싶을 것이다. 어떠한 인생은 죽음이 빨리 찾아올 것이고, 어떤 인생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인생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 안에서 우리는 살아온 날을, 앞으로 살아갈 날을 후회하며 살아왔고, 살아갈 것이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고, 어쩌면 없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찬란한 오늘을 살아가며 보다 나은 내일을 약속할 수 있다.
두려움에, 두렵다는 이유로 선택을 망설이지 말고, 두려움을 이겨내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를 바라며.

연출의도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그 과정을 카메라를 인물들과 거리를 두어 담담하게 그려내어 그 속에서 느껴지는 세밀하고 작은 감정의 부분과 변화를 영화 안에서 보여주고 싶다.

로그라인

죽음을 두려워하는 신참 간호사가 내일을 두려워하는 죽기 직전의 환자를 만난다.

주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캐릭터 설정

간호사 (20대/여) : 신참 간호사이다. 누군가와 다툰 어느날, 죽기 직전의 환자를 만나며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환자 (20대/남) : 이른 나이에 병을 얻어 몸이 쇠약해져 죽기 직전의 상황이다. 병실 침대에 누워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다.

opening. 병실 / 밤

병실 문을 열고 나오는 어린아이.
병실 문 밖 의자에 앉은 어린아이의 얼굴이 보이며, 그때 병실에서 들려오는 곡소리.
여전히 어린아이의 얼굴이 보인다.
어린아이의 어머니는 아이 앞에 서 울며 아이를 안는다.
아이의 표정은 어딘가 두려워 울기 직전이다.

S#1 병원 옆 골목 / 오전

흐린 날씨. 어린아이는 자라 간호사가 됐다. (아이의 얼굴이 보인 후, 바로 간호사의 얼굴이 보인다)
누군가와 전화하고 있는 간호사. 어딘가 급해 보인다.

간호사　　어쩔 수 없는 거 알잖아..

그렇게 통화를 이어가던 중, 손목 시계를 본다.
바로 통화를 끊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간호사.

S#2 병실 앞 복도 / 오전

병실 앞 복도. 불을 환하게 켜져있다.
간호사 옆엔 선임 간호사가 있다.
선임 간호사는 간호사에게 필요한 지침을 알려준다.
고개를 까딱하며 돌아가는 선임. 간호사는 허리 굽혀 인사한다.
선임 간호사는 복도를 나오고, 간호사는 떠나는 그를 바라보다 병실을 쳐다본다.

S#3 병실 / 오전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다. 병실 안은 커튼이 쳐져 있고, 밖은 보이지 않는다.
병실엔 침대 하나가 놓여있고, 침대엔 환자가 누워있다.
간호사는 환자의 진료서를 들고 침대 옆으로 온다.
이들의 투샷이 거리를 두고 보인다.
환자는 고개를 돌려 간호사를 쳐다보다 다시 고개를 돌려 정면을 바라본다.
간호사는 묵묵히 환자를 쳐다본다.
환자는 고개를 돌려 창문 쪽을 쳐다본다.
간호사도 환자의 시선을 따라 창문을 바라본다.

커튼 쳐진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환자.
환자의 표정은 우울해 보인다.
그 뒤엔 여전히 간호사가 서 있다.
간호사는 창문을 쳐다보던 시선을 환자에게로 옮긴다.

S#4 병원 옆 골목 / 오후

흐릿한 날씨 뒤로, 비가 오기 시작한다.
간호사는 비가 오지 않는 곳에서 비를 가만히 바라본다.
롱샷으로 비춰진다.

S#5 병실 / 오전

씬3과 동일 시점.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
간호사는 그 옆에 서 있다.

환자 **자꾸 떠올라요**

간호사가 환자를 쳐다본다.

환자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 않네요.**

약간의 정적이 흐른다.

환자 **그게 너무 두려워요. 내일도 계속 생각나겠죠**

간호사는 조용히 환자의 말을 듣기만 한다.
환자가 고개를 돌려 커튼 쳐진 창문을 바라본다.

환자 **(말을 돌리며) 날씨는 어때요?**

간호사 **좀 흐리네요**

환자 **비가 오겠죠?**

간호사 **네, 아마도..**

간호사는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다.

S#6 병원 뒤 골목 / 오후

비를 바라보는 간호사가 롱샷으로 보인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간호사.

S#7 병실 / 오후

환자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다.
간호사는 환자의 옆에 서 있다.
둘 사이 정적과 함께 창문에서 들리는 비 맞는 소리만 들린다.
환자는 고개를 창문 쪽으로 돌린다.

환자　　비가 오나요?

간호사　　네, 흐리더니.. 비가 오네요.

환자는 무표정으로 창문을 바라본다.
그러더니 몸을 일으켜 침대에 앉는다.

환자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맑은 날을 기대해도 비가 온다는게.

화면 점점 암전.
병실 안에서 들리던 환자감시장치의 소리는 점점 빨라진다.
마침내 들리는 삐- 소리.

S#8 병실 밖 복도 / 밤

길게 지속되던 삐- 소리는 점점 안정적으로 바뀌어간다.
병실 밖에는 간호사와 선임 간호사가 서 있다.

선임 간호사　지금은 좀 괜찮아지셨는데, 몸 상태 많이 안 좋아지셔서.. 알겠죠?

간호사　　네..

선임 간호사가 간호사 옆으로 지나간다.
간호사는 문 앞에 있다.
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는 간호사.

간호사는 고개를 돌린다.
복도 의자엔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이 보인다.
의자에 앉은 채, 멍하니 정면을 바라보는 어릴 적 자신.
간호사의 두려워하는 표정.
간호사는 손잡이에서 손을 뗀다.

S#9 복도 의자 / 밤

간호사는 복도 의자에 앉아있다.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다.
그때, 선임 간호사가 앞을 지나간다.

선임 간호사　퇴근 안해요?

간호사　　아, 네..

선임 간호사　걱정되서 그래요?

간호사는 아무 대답이 없다.
고개를 내리는 간호사.

선임 간호사　괜찮아요, 늘상 있는 일이에요.

간호사　　환자분은 어떻게 될까요..

선임 간호사　글쎄요, 저는 모르죠.

간호사는 고개를 들어 선임 간호사를 쳐다본다.

선임 간호사　근데 바뀌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저는 믿어요. 너무 맘조리진 마시고..

선임 간호사는 복도를 쭉 걸어간다.
간호사는 복도 의자에 앉아있다.

S#10 병실 밖 복도 / 밤

간호사는 병실 앞에 서 있다.
간호사가 고개를 돌리자,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이 보인다.
복도 의자에 앉아있는 어린아이.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다가와 어린아이를 안으며 운다.
어린아이는 간호사를 쳐다보고, 눈이 마주친다.
간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는다.
문을 여는 간호사.

S#11 병실 / 밤

병실 안은 캄캄하다.
환자는 병실 침대에 조용히 앉아있다.
환자의 시선은 창문을 향한다.
간호사는 환자 옆에 선다.

환자 **날씨는 어때요?**

간호사 **비가 오네요**

환자 **내일도 비가 오겠죠.**

간호사 **네, 그럴거에요.. 근데, 모르잖아요**

환자가 간호사를 쳐다본다

간호사 **흐리겠지만, 맑을 거라고 믿는거에요. 아주 맑고 화창하게. 그냥.. 그렇게 믿는 거에요.**

S#12 병원 옆 골목 / 오전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간호사
날씨는 전날과 달리 화창하다.

간호사 **아니 그냥, 전화해봤어.**

화면엔 바람 소리, 화창한 풍경이 보인다.
전화 소리는 들리지 않고, 화면 점점 하얘진다.

엔딩 크레딧